

설 가 정 예 배

[예배 순서지를 읽으며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은혜 충만한 축복의 동산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 창 동 교 회

담임목사 김 동 희 (Peter D. H. Kim, D. Min.)

오늘 설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심에 감사하며 늘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립니다.

먼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족 중에 기도할 분이 계시면 대표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가족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가 지키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 되게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52장 (통일35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후렴 :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3.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는 창세기 39:2~3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말 씀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중 요셉은 성경에서 형통한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가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형통의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는 다음과 같은 삶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1. 첫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팔려서 보디발의 종이 되었다가 주인의 인정을 받아 가정총무가 된 요셉은 주인이 맡겨준 대로 가정의 모든 소유를 충실히 관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을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8,9) 라고 하며 거절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이 무서운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2. 두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모든 고난과 설움을 이기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은 지난날 자기를 종으로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형들은 두려워 떨니다. 왜냐면 복수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 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창 50:19-21) 요셉은 자기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고 그랬기 때문에 형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3. 세 번째로,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꿈을 해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 41:16)라고 말합니다. 또한 꿈을 모두 해석한 다음에 바로는 이렇게 요셉을 향해 말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창 41:38,39)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을 때에도 늘 주님께 기도했고, 그 이후의 삶에서도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에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삽시다.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늘 주님의 시선 앞에서의 삶을 삽시다. 또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앞에 나와서 그분께 묻고 성령께 감동된 삶을 삽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 한 해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해가 되게 하시고 이웃들, 친지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한 해 되게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기본신앙에 충실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저희에게 주신 은혜에 더욱 감사하여 그 은혜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통일51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1.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옆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2. 이전에 세상 낙 기뻐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3.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설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가
온 가족과 생업 위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8년 설 명절에. 담임목사 김 동 희